

여 성 동 향

94.12.26 - 95.1.25

여/성/사/회/연/대

중로구 중로6가 239/30 세경 B/D 502호

☎ 765/6807 Fax 744/2893

■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계는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를 여성 정치참여 원년으로 삼고 여인들의 선거권 진출 확대에 촉진을 하고 있다.

4일 국제여성연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 성적은 세계 1백78개국 중 1백13위에 머물고 있다. 여성계는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깨고 여성 권익향상을 위해 물푸레민주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다지며 6월 지방재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각 단체들의 신년계획을 살펴보면 ·

◇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연숙) = 5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백07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 할당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작업이다. 오는 16일까지 이 작업을 끝내 조사결과를 갖고 각 정당대표를 만나 할당제 도입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20% 여성공천을 관철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작정이다.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영순) = 여성후보가 내세를 만한 공동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낼 예정이다. 또 여성후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초청 토론회를 열고, '세계 3·8여성의 날' 기념 제11주년 한국여성대회도 '남녀 유권자 한마당'으로 꾸며 남녀유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후보를 주대하는 한마당 축제로 진행할 생각이다.

특히 한국여성대회를 여성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방의회 여성후보 진출을 지지하는 남성 후원자와 남편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유도 할 방침이다.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손봉숙) =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지방의회에 입후보할 여성후보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스쿨'을 연다. 이번 교실은 강의 위주의 기존 강좌형식을 탈피해 후보자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는 형태로 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여론조사용 설문지도 작성해보고 지역성향을 분석해 공약과 연설문도 만들어보도록 구성했다.

입후보자 외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운동원·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해 팀워크 이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짜 선거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집행·조직구성·자원봉사 활용방법뿐 아니라 선거때 입을 옷과 구두 등 의상에 대한 조언 등도 프로그램에 잡혀 있다.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신낙균) =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할 여성들을 도울 '선거자원봉사자뱅크'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잡았다. 전국 12개 지부를 통해 2천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여성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월에는 3회에 걸쳐 '여성정치지도자교육'을 열어 여성 입후보자들을 교육하고 오는 17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과 여성후보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여성지방의원 의석 확대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여성의석 확대를 위한 장·단기 목표와 전략' '95년 6월 선거에서 여성 의석 확대를 위한 전략과 전술모색' 등을 논의한다.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정숙) = 오는 2월 6일 서울에서의 '여성정치참여 성공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광주·부산·춘천·대구 등 지방을 순회하며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열 계획이다. 또 3월에는 '아·태 지역 여성정책의 과제와 전망' 주제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김창희) = 입후보하는 여성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형 '선거수첩'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중요선거 일정표와 법에 저촉되는 사항, 간단한 구호, 유세 사례, 중요한 기관, 문의 사항에 필요한 곳을 담아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여성 입후보자들이 연설에 약한만큼 유세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강좌를 집중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 여성 근로자 평균 3.8년 근속

여성근로자들은 평균 3.8년 근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근속연수가 이처럼 짧다는 이유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교육훈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한국경제기자클럽회가 1백인 이상 고용업체 3백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성근로자 고용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3.8년으로 6.2년인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와 관련해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고, 45.7%와 35.8%는 내용이 미진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이유로는 근속연수가 짧아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이 2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이 활약할 무대가 없다(21.1%), 현행 교육으로 충분하다(20.4%), 경비가 많이 든다(18.5%) 등의 순이었다.

여성의 취업직종은 생산직(41.7%)과 사무관리직(39.0%)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전문기술직(4.3%), 영업판매직(3.5%), 기타 서비스직(2.7%)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등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고용제도에 대해서는 12.6%만이 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대부분은 제도가 있지만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25.6%), 제도 자체가 없다(61.8%)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제도는 절반이 넘는 58.2%가 이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있더라도 활용하는 기업은 17.1%에 불과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법제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것(38.0%), 사회통념상 현실성 결여(19.1%) 등으로 회의적이었다.

■ 주민결에 바짝 다가선 생활정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정치를 획기적으로 실현하는 마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임명해온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면서 지역의 당면문제를 지역정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림에 따라 직업정치인들의 고유업무로만 여겨 구체적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온 '정치'가 이제는 주민 결에 바짝 다가서게 된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운동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다양하고 자생적인 주민조직의 구성 및 활성화는 자치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40여년 동안 계속돼온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동맥경화증에 걸린 관료조직 탓에 지난 92년 자치제가 도입된 뒤에도 주민이 끼어들 틈이 폭넓게 주어지지 않아 자치제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은 직접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그저 바라만 봐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부산에서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기독교청년회,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여성정책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운동단체가 시청참여단을 구성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평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들 시민단체의 활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정이다.

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뽑게 되면 지방정치를 보거나 판단하는 주민들의 눈과 머리가 달라지고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나 비판을 하는 등 참여도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도 기초단체를 감시하고 이끌어가는 마을 단위 주민운동쪽에 상대적인 무게를 실고 있다.

반상회 새마을부녀회 등 지금까지 행정당국과 소수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여온 관련단체들의 체질 개선 당위성이 생겨나고 있으며, 아파트의 입주인 자치기구나 부녀회와 같은 각종 자생적인 주민모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는 금샘사랑방문화클럽, 남구 늘푸른 시민의 모임, 북구의 정자나무, 금정구 구서동 선경1차아파트의 쓰레기줄이기운동 등 이러한 마을 단위 주민조직의 싹들이 이미 자라나고 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단순한 정책 홍보공간이던 반상회의 체질을 발전적으로 바꿔 마을 조경문제, 쓰레기 줄이기, 어린이 보호운동, 아파트 부실공사 바로잡기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가는 주민조직으로 만든 마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어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재벌 중심의 경제제일주의, 지역주민의 참여 및 참여능력의 빈곤에서 비롯된 교통·환경문제와 공공시설 부족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생활의 질을 좀더 낮게 만들기 위해 참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구성이 시급한 현실이다.

앞으로 주민운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나 아직은 운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운동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주민 속에 뿌리내리는 지도자의 재발견이 중요하고, 주민운동이 기

초단위인 생활공동체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 특히 주부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의회진출등 여성의 정치권 진입을 통한 여성 권익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마을이라는 생활공동체를 직접 꾸려가는 주체가 주부라는 관점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주부들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이처럼 주민의 자율의식을 일깨워 주민 위주의 활동이 크게 고양되리라는 전망과 달리 지역유지와 권력의 결함을 통해 기득권층을 확대 재생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그런 속에서도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시민·여성·환경후보를 진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아직은 세력화되지 못해 미약하지만 지자체를 주민들의 진정한 자치 실현의 마당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하나 둘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 경남 여성후보발굴모임 결성 : 지방의회 선거에 나갈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할 또하나의 연대모임이 결성됐다. 경남여성회·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남지부·전문직여성 막산클럽 등 21개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10일 '여성후보발굴을 위한 여성단체연대모임'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연대모임은 앞으로 경남지역 여성후보찾기 작업과 함께 각 정당에 여성후보공천을 요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경남지역 시민의식조사'를 하며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의 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 경제활동인구 지난해 2천만명대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천만명대를 넘어섰으며, 실업률도 큰폭으로 떨어져 지난해 3/4분기의 경우 92년 같은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호황국면에 힘입어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김대모)이 16일 펴낸 <3/4분기 노동동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사상 최고치인 62%에 이르렀으며 3/4분기의 경우 2천62만9천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의 분기 평균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2천만명대를 웃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여성인력과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진출이 이 시기 들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성인력의 경우 지난해 3/4분기 경제활동인구가 8백35만4천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를 주도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49.0%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55살 이상의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해 모든 연령 계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남자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백92만7천명으로, 기타서비스업은 여자의 취업자수가 7.2% 증가한 4백84만2천명으로 집계돼 제조업 취업자의 증가는 남자에 의해, 서비스업의 경우는 여자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3/4분기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5%나 줄어든 44만8천명으로 이에 따라 실업률도 0.4% 하락한 2.2%를 나타냈다.

■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

정신대 관련단체들이 광복 50년인 올해 안에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호재 등)는 오는 2월 9일 오후2시 노충희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계기로 올해 활동의 포문을 연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성적 착취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본군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새롭게 인식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은다.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는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도 계획돼 있다. 필리핀의 '릴라 필리피나', 일본의 '종군위안부 행동네트워크' 등 아시아지역 정신대 관련 민간단체

들이 대거 참여할 이 연대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민간모금 형식의 위로금 지급안에 대한 부담성을 진중 논의하고 나라별 대일 활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4일에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군위안부 관련 보고관인 린다 차베스와 쿠마라 수와미·조아네 기세 등이 참가하는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세미나'도 연다.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2~3명도 초청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증인의 자리를 마련하고 6월중 고향방문·건강검진등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정대협이 신경을 쓰는 행사는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세계여성회의'다.

각국 여성지도자 2만~3만명이 참가할 이 회의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종군위안부 문제를 세계여성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과제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또 그동안 정대협이 모은 종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올해안으로 종군위안부 자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3년여동안 주한 일본 2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계속해 온 '수요시위'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신대연구회(회장 정진성)도 이달말께 중국에 있는 일본군 종군위안부 할머니 12명의 증언을 모은 책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출판사)을 펴낼 계획이며, 이미 93년 1권이 나온 정신대할머니 증언집 2권도 3월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증언집만으로는 부족한 종군위안부 관련 법·제도·당시 자료들을 분석한 <종군위안부 연구논문집>도 올해안으로 펴내는 등 연구사업을 본격화 한다.

■ '방과후 아동지도법' 제정 시급

맞벌이나 편부모가정 어린이들의 방과후 공부와 생활을 돌볼 수 있는 시설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아동지도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정자)은 20일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국민학교 취학 전까지의 맞벌이·편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탁아소·놀이방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방과후 혼자 놀 수밖에 없는 국민학생들을 돌볼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 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아동법 제3조 18항 5호에 '모든 지역학교 당국은 지역소재 학교에 취학중인 아동에게 수업시간 밖이나 학교가 쉬는 날 지도·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교육법 제22조에 '학령아동 지역탁아와 서비스규칙·행정지침·보조금'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 일본도 아동복지법 제22조 2항에 '보육소는 소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해 방과후 여가지도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0~6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보육시설 입소대상 아동연령을 12살까지로 연장해 놀이방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따로 지도교사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학교시설을 개방해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학교 시설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개방하도록 돼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교실 개방시 책임소재를 재조정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육비 책정 △학부모의 아동보육비 제공 허용 등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택을 활용해 아동지도시설을 운영할수 있도록 허용할 것 △지역사회시설 중 각종 회관·복지관·교회 등도 아동지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시작전부터 방과후까지, 휴일과 방학중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것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재정을 확보할 것 △동 단위로 방과후 아동센터를 설치할 것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격인정교육을 제도화할 것 등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현재 서울지역 방과후 교실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449-2341 월곡종합 943-0251 이화여대(성산) 374-5884 이화여대 362-6080 장안종합 242-7564 태화기독교 734-4772 풍납 474-1201 하트하트 430-2000 자양종합 201-1629 가양4 668-6689 마천 449-3141 등에 개설돼 있다.

■ [세계화 추진위 첫회의] 교육개혁등 12개 중점과제 선정

민간과 정부 합동으로 세계화 추진 정책과제를 심의·조정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공동위원장인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의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세계화추진위 1차 회의는 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해양 등 20개 분야의 65개 과제를 세계화 추진 정책과제로 확정하고 '세계화 구상'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화추진위는 특히 정책과제 가운데 교육제도 개혁안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외국어교육 강화방안 등 12개 과제를 위원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해 앞으로 '세계화 핵심과제'로 발전시켜 가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는 또 김봉균 총리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세계화추진기획단이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을 맡고 각 부처에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기획반을 구성해 세계화 관련업무를 맡도록 한 정부의 세계화 추진체계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2회 정례 본회의를 열고 민간 위원장의 주재로 관련위원들이 참석하는 분야별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인호교수(서울대), 김진애(건축가)씨를 세계화추진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 [복지] 직장육아시설 설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5백명 이상'인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보육시설을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의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수준을 종전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춰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은 현재 1백2곳에서 1천1백60여곳으로 크게 늘었으나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실제 시설을 갖추는 사업장은 이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군·구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등에 부설운영되는 양성기관의 교육시간을 총 8백시간 이상에서 1천2백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세/계/는/지/급

○ 일 본 / 3월 유엔사회개발정상회담서 외국인노동자 권리 강화

오는 3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는 96년까지 최빈국에 대한 채무감면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냉전종식이나 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생긴 빈부격차, 실업, 사회의 분열 등에 대해 세계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모여 논의하는 이 회담의 선언과 행동계획 초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외국인노동자,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마련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동계획 초안은 △아프리카 국가등 최빈국이 안고 있는 2국간채무의 일부말소조치 등을 96년까지 취하고 △각국이 빈곤박멸 대책을 시기별로 마련해 2000년까지 학령에 달한 아동의 80%가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언했다.

행동계획은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 관련국제협정을 승인하고 노동조합, 사회보험등의 가입을 보증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아동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또 비정부조직등 시민단체의 사회개발참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정부개발원조를 국민총생산의 0.7%로 끌어올리며 2005년에 2차정상회담을 열어 진척상황의 점검을 요구했다.

선언 초안은 냉전 이후의 세계에 국가간·국민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10억 이상의 빈곤층이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등 사회개발을 통해 전염병, 테러, 조직범죄, 마약 퇴치를 제창했다. 선언은 또 '사회개발을 위한 경제, 정치, 법적 환경정비', '각국정부, 국제협력에 의한 빈곤 퇴치', '생산적 고용의 보증', '완전한 남녀평등의 달성', '사회개발자금증대' 등 9개항목의 공약을 내걸었다.

세계각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구 규모의 문제들을 논의하는것은 92년의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 처음이다.

○ 베트남 / 봉건 여성상 벗고 경제전선 나서

호치민의 하이바쯔 거리는 고급 상점이 즐비한 번화가이다. 베트남의거리 이름은 대부분 영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하이바쯔는 '두 명의쯔 부인'이란 뜻이다. 그런데 하이바쯔 거리 옆으로 난 조그마한 셋길 이름은 티삭이다. 티삭은 두 쯔 부인 중 언니인 쯔썩의 남편이라는 것이다.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 40년, 영주의 부인인 쯔썩은 남편이중국인 태수에게 체포되자 동생 쯔니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반란에 성공 한다. 그뒤 쯔 자매는 매린에 도움을 청하고 짜오썩와 꼬우썩 일대를 통치한다. 그러나 3년만에 중국이 재침공하자 쯔 자매는 항복을 거부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들의 항쟁은 중국 지배에 대한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저항운동으로지금도 두 자매는 국민들의 우상이다. 거리에 하이바쯔이란 이름을 붙여 그들을 기리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반면 대로 옆의 보잘 것 없는 셋길에 남편인 티삭의 이름을 붙인 후대인들의 발상도 재미있다. 베트남 역시 한국처럼 오랜 세월 중국과 유교의 영향을 받아 여성을 '삼중지도' 등의 봉건 이데올로기에 묶어왔다.

그러나 가냘픈 몸매의 베트남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억세고 질기게 버텼으며 강했다. 전쟁중에는 남성과 함께 총을 들거나 외국인 병사에게 몸을 팔아서까지 생계를 떠맡았다.

공산화 통일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는 역시 남성과 함께 삽과 괭이를 지고 복구에 나섰다. 이제 경제개방화 이후 베트남 여성들은 좀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경제전선으로 나서고 있다.

○ 뉴질랜드 / 첫 여자심판 국제축구경기

국제 남자축구에 여성심판이 사상 처음으로 주심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 태생으로 올해 36살인 린더 블랙은 23일 밤 뉴질랜드의 뉴타운 파크에서 열린 뉴질랜드와 덴마크 올림픽 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주심을 맡아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뉴질랜드에 1-2로 패한 덴마크는 "경기도중 뉴질랜드 선수가 교묘하게 손으로 공을 건드려 골문안으로 집어넣은 것을 블랙이 잘 잡아냈다" 며 첫 여자 주심의 경기운영에 만족을 표시했다.

단/제/소/식

○ '상록수'의 실제인물 '최용신' 주도 예배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제인물인 최용신 선생 60주기 추도예배가 지난 22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천국교회에서 열려 근대 농촌운동과 여성운동을 되돌아보게 했다.

26살의 젊은 나이로 광복 10년전인 1935년 생을 마감한 최 선생은 <상록수>에서 여주인공 채영신으로 묘사돼 그의 농촌 계몽활동이 알려졌고 유달영 박사의 <최용신 전기>를 통해 독립운동 정신이 전해오고 있다.

추도예배가 열린 천국교회 일대는 그가 22살 때인 1931년 기독교청년회 농촌사업부로부터 파견돼 숨지기 전까지 4년여 동안 헌신적으로 농촌계몽활동을 펴온 곳이며 아울러 그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어린이 성교육교실

한국여성민우회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교실을 열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어린이 성교육 교실'은 국민학교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뉘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달라요' '소중한 내 몸은 내가 지켜요' '내 몸이 달라지고 있어요' 등의 강의를 마련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부모 대상의 '자녀 성교육 지도교실'도 한달간 '감추어진 성, 드러난 성-성과 문화' '남녀 생식기의 구조와 해부' '자녀가 자주 묻는 성문제' '변화하는 사회와 성교육 방향' 등을 교육한다. 이학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윤양현연구원·신경정선과 전문의 이근덕씨 등이 강의한다.

○ 세계대회 축하음악회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는 27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세계여자기독교청년회 세계대회 축하음악회'를 열었다.

○ 일일자원공무원 신청자 모집

서울기독교청년회 21세기 서울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2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일일자원공무원운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운동은 주민자치 및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시민이 직접 시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시정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분야는 환경·교통·소비자·청소년교육·문화 등 5개 분야이며, 2월14일 오후 2시 구청 해당과장들과 교육간담회를 가진다.

○ 차세대 정지지도자연수교육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손봉숙소장)는 오는 2월6일부터 '국제기구활동에 여성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차세대 여성지도자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달/익/여/성

○ 한국통신 첫 여성국장 이영희씨

"그동안은 전문성을 키워 남성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왔으나 이제는 관리·경영 능력을 익히는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장이 된 이영희(38)씨는 복잡한 기계인 전자교환기 전문가 이다.

지난 13일 인사에서 서울전자교환운용연구단 운용지원2국장으로 발령받은 이 국장은 지난 80년 한국항공대 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음해인 81년 한국통신 서울 영동전화국 기계부장이 돼 지금까지 14년째 한국통신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92년 '기술자'로선 최고의 자리인 '전기통신 기술사' 자격을 역시 여성 최초로 땀다. 남편 임순철(40)씨도 한국통신 마케팅지원국장으로 있다.

○ 평등부부상 받은 최정현,변재란씨

정무장관(제2)실과 (주)여성신문사가 선정한 제1회 '평등부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들 중 여성신문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시사만화가 최정현(34)씨는 여성문화예술기획 기획위원인 변재란(33)씨와 함께 평등 부부로 뽑힌 이들의 수상 이유가 '남편이 육아를 더 많이 책임지는 가사 분담 형태를 소신껏 실천한 것' 이기 때문이다.

88년 1월 결혼할 때만 해도 '아이를 낳아 책임질 자신이 없다' '아이가있으면 창작활동에 치명적이다' 등의



이유를 달아가며 아이를 낳지 말자 고 약속했던 이들 부부는 결혼생활 7년만에 딸 최하예린(5)을 함께 잘 키워내, 아이 덕분에 '평등부부상'까지 받게 됐다.

남편 최씨의 육아 입문은 5년전인 지난 90년 5월 딸이 태어난 한달 남짓 이후부터 시작된다. "주간신문 <여성신문사>에서 아빠가 쓰는 만화 육아일기를 그려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해왔죠. 처음에는 여차피 집에서 프리랜서로 있는데 애도 보고 그림도 그리니 괜찮겠다 싶어 쉽게 응했습니다"

최씨는 그때부터 '순전히' 만화 소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아기 동거저귀를 빨고, 병원에 데려가고, 옷 사러 가고, 놀아주는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일이 5년 정도 계속되면서 최씨는 진짜 육아 전문가가 돼버렸다.

최씨의 육아일기는 그동안 <반쪽이의 육아일기>(여성신문사) <반쪽이의육아이야기>(미학사)로 출판됐으며 최씨는 앞으로 딸이 성장해 결혼할 때 까지 30년간 이 작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새/로/니/온/책

한·일 보육운동 보고서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영순)는 최근 일본 보육운동의 역사와 보육현장 탐방기를 담은 <한·일 일하는 여성들의 보육운동 교류 보고서>를 펴냈다.

이 책은 무인가 보육원인 도쿄 시나가와구 고구마 보육원·대표적인 직장보육소인 니혼 나카노푸루이기는 노동조합 보육원·기와사키시 시립보육소 등 각종 형태의 일본 보육시설들의 운영방법과 교육과제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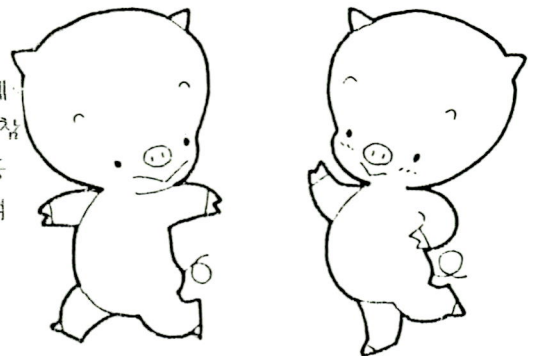
새해부터 각종 여성관련 국제대회를 겨냥해 발걸음이 빨라지는 등 이른바 '세계화'에 발맞추려는 여성계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올해 여성계가 준비중인 여성관련 국제대회는 오는 8~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유엔 세계여성회의'와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여성지도자회의' '세계여자기독교청년회 100주년 기념대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세계여성회의'가 멕시코시티·코펜하겐·나이로비 등 먼곳에서 열렸던데 반해 올 대회는 가까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라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많은 참가가 기대되고 있지요.

하지만 국제적 연대를 이뤄 여성운동을 펼쳐본 경험이 부족했던 여성계는 이렇기 참가 이상의 구체적인 준비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사회연대'는 지난해말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총망라돼 결성됐던 '한국여성NGO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여성단체가 국제적 연대를 갖춰 활동한 사안인 '정신대'문제 등 인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적으로 결집하고자 합니다.

'여성사회연대'가 95년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수 있는 것은 일하는 여성들의 기원이 함께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송금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한일은행 / 107-141623-12-101 / 인재근